

가족문제해결을 위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 기독교 청소년과 비기독교 청소년 비교

전요섭(성결대학교 기독교상담학 교수)

이진영(성결대학교 심리상담연구소 연구원)

논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기독교 청소년 및 비기독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위험성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 실시되었다. 자료 수집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4개 고등학생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 3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측정도구는 맥코빈(M. McCubbin), 맥코빈(H. McCubbin)과 톰슨(A. Thompson, 1996)이 제작한 가족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Family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검사지, 하레(Bruce R. Hare, 1985)가 제작한 자아존중감 척도(Hare Self-Esteem Scale), 고효진, 김대진, 이흥표(2000)가 개발한 청소년 자살위험성 예측 검사지(Suicide Probability Scale for Adolescents: SPS-A)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Pearson 적률상관분석,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긍정형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부모와의 부정형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기독교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학교자존감, 또래자존감, 가정자존감, 모 부정형 의사소통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 또래자존감, 부 부정형 의사소통 순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가족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자살위험성 예측, 청소년, 기독교상담

I. 서론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의 자살률은 급상승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국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명으로 전년도 대비 19.3% 증가해 전체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0). 그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2009년 청소년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2008년 인구 10만 명당 22.1명에서 29.5명으로 증가해 10대 사망원인 중 1위로 나타났다(배주미 외, 2010: 5-7). 특히 2009년 한 해 동안 초·중·고생의 자살 건수는 전년대비 47% 증가하였고(한국일보, 2010), 이 중 충동적 자살이 30%에 이르러 청소년 자살 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자살률에 더해 자살시도와 자살생각까지 고려한다면 청소년의 자살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청소년 자살은 충동성이 강하게 작용하며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Friedrich et al., 1982: 402-407; Range, 1993: 135-154). 이는 청소년기가 행동적 대처양식, 정서적 자기통제능력, 조절능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이므로 스트레스나 갈등이 많아지면서 자주 불안한 상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 자살은 대부분 죽으려는 의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사회·심리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도움요청의 극단적 표현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자살은 사후대책 마련보다는 예측된 자살 위험요인 조절과 관련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사회구조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등 복잡하고 상호 관련된 여러 사회심리적 요인이 있지만,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자살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특히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 사회성, 도덕성 발달, 적응수준 등 자녀의 인성이나 행동 발달 및 심리 정서적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안현정·이소희, 2005: 65-81). 또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성격, 행동, 적응 등 인생전반에 걸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성숙의 지표로 강조되어 왔으며,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 이룩해야 할 주된 발달과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므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 추측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발견하는 것

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의사소통과 자살 관계에 대한 연구들로 대부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다루었을 뿐, 이 세 가지 요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밝힌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을 예측해주고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살위험성, 그리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살위험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 하위 유형 들 중 어떤 하위요인들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큰지를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자살 예방과 상담에서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청소년과 비기독교 청소년 간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의 상호 관계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이는 기독교의 생명사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특히 자살을 죄로 인식하는 강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기독교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다. 기독교 청소년과 비기독교 청소년 간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또는 이 두 변인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면 기독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상담이나 교회교육, 부모상담에서 어떤 측면을 더 강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청소년과 비기독교 청소년을 구분하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및 부모교육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은 서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에 미

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기독교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하나님과 상호 의사소통을 하고, 또한 이웃과 사랑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은 의사소통의 효과적인 기술을 갖고 하나님, 이웃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전요섭, 2007a: 376-379). 이를 위해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청소년들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먼저 갖게 되는 타인을 이해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 느낌, 태도, 생각 등의 메시지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능력으로서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을 포함한다(Olson and DeFrain, 2006: 97). 의사소통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가족 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구성원은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관계를 정립해 나간다. 이러한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이다.

바네스(H. L. Barnes)와 올슨(D. H. Olson)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을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였다(Barnes and Olson, 1985: 438-447). 개방적 의사소통은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다. 문제형 의사소통은 일치되지 않고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고 부정적인 발언을 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분류는 맥코빈(M. McCubbin), 맥코빈(H. McCubbin)

과 톰슨(A. Thompson)이 분류한 긍정적 의사소통, 부정적 의사소통과 같은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맥코빈(McCubbin), 맥코빈(McCubbin), 톰슨(Thompson)의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기는 부모에 대한 기존의 애착 및 의존적 태도에서 벗어나 갈등 및 긴장관계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기대와 가치, 역할의 재조정 및 부모-자녀관계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요구된다(전요섭, 2007b: 189-212; Wright, 1998: 264).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와 애정을 발전시킬 수 있고, 자녀의 인성과 행동 발달 및 사회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Rice, 2004: 131).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갈등이 생성되고, 갈등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화되면 자녀의 심리·정서 문제가 초래되기도 한다(Wodarski and Harri, 1987: 477-484). 따라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가정생활을 원만하고 행복하게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며, 부모-자녀 간의 감정을 유지시켜주고 상호활동을 조장시켜 주며, 자녀의 사회화와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은 다른 발달단계의 가족보다 가족 구성원 간의 밀접한 유대감을 지속하는 일과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더 많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가정 내에서의 의사소통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려는 일방적 지시, 명령, 훈계, 설교, 비판 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이 많다.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대화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10), 부모와의 의사소통으로 인한 갈등과 불화가 주원인이 되어 가출과 비행, 스트레스, 우울, 인터넷 중독, 반사회적 문제행동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보화·이정윤, 2010: 1221-1236; 조하나·백용매, 2009: 1035-1048). 이처럼 청소년의 부모와의 대화시간 부족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와 갈등을 일으키고 청소년의 인성, 심리, 정서에 발달 장애를 가져오며, 다른 사회집단에 부적응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지연, 김효창, 현명호(2005: 375-94)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원활할수록 자살생각이 감소하였다. 반면 부모-자녀 간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자살생각을 증가시켰다. 이는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가정 문제를 유발시켜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과 부모의 갈등을 해소하고, 청소년이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 개방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에서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은 하나님 능력의 반영으로 의사소통의 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잘 인식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창세기 1:26-27).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창세기 3:8; 로마서 3:23, 5:12), 이 단절은 인간의 육체적 물질적 삶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의 단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극복을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하며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경험된다(김남식, 1999: 55-63). 사티어(V. Satir)는 의사소통 문제의 원인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언급하고 있다(Satir et al., 2005: 25-27). 그러나 기독교에서 인간의 의사소통 문제는 단순히 낮은 자아존중감의 문제는 아니고 죄에 의한 것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회복될 때 부모-자녀 관계, 가족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 가족, 타인과의 화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행동을 수반한 사랑의 언어적 표현, 그리고 격려와 인정 등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을 습득하고 적절하게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자녀들의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전요섭·황미선, 2004: 166-168). 부모와 청소년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는 서로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언어 및 기타의 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의사소통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Sillars and Fitzpatrick, 2005: 102-128).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수용이나 관심, 가정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제한을 설정하고 책임을 위임하고 애정뿐 아니라 존경도 표현하려는 노력이 포함하여야 한다(Meier et al., 1991: 205-206).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치를 만큼의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의 소중함을 가르쳐주어야만 한다.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이 나타난

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면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적응해야 하는지 혼란에 빠지게 되며, 불안정과 불균형이 심한 긴장 속에 많은 문제점들을 갖게 된다(Capps, 2001: 26). 특히 청소년기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데 대한 자의식이 강하고, 이 시기의 자아정체성이 일생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각종 신체적, 심리적 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쉽게 심리적 외상에 노출되고, 긴장, 불신과 오해로 얼룩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낮은 자아존중감은 심할 경우 자기 비하와 열등감으로 빠져서 청소년들의 정서 상태와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정신적 질환, 심지어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이다. 실제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솔선해서 행동하고 환경을 능동적으로 탐색하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의 문제, 스트레스, 학교생활 부적응, 대인관계 문제, 낮은 학업 성취수준을 보였다(현명선·남경아, 2009: 293-301; 채유경, 2004: 136-144). 따라서 청소년기에 발달과업을 잘 수행하여 자아를 확립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자아정체감의 확립과 더불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쿠퍼스미스(S. Coopersmith, 1967: 16)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그의 가족적 경험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를 강조했는데, 자아존중감 발달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수용적, 신뢰적 대화 태도를 강조하였다. 즉 자녀가 설정된 한계 내에서 자녀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며, 가족활동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게 하며, 자녀가 필요로 할 때 유능하고 조직적인 도움을 주는 부모의 자녀가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청소년의 부모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표현에서 자유로웠다. 자녀 역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국길숙·이미숙, 2003: 89-107). 즉 부모와의 공감적 이해, 솔직성, 구체성 등의 특성을 가진 촉진적 의사소통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모의 친밀하고 수용적인 의사소통 형

태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콜린스(G. R. Collins, 2003: 317-318)는 낮은 자아존중감은 부모에 의해서 경험된 비난과 창피, 거부 정도에 정비례하여 형성된다고 하면서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사랑 받고 존중받으며 칭찬받고 성취하였다는 감정의 경험이 개인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발달에 기여한다. 반대로 무시되고 거부되어지며 야단맞는 등의 경험은 부정적인 자아존중감 발달에 기여하는 심리적 요인이다(Newman and Newman, 1991: 249). 그러므로 건전한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해 부모는 자녀와 대화시 온화하고 수용적인 태도, 자녀에 대한 애정의 표현, 자녀의 발달에 적합한 자율권의 허용, 통제와 허용의 적절한 균형유지, 자녀에 대한 명백한 기대 제시 등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Hamner and Turner, 2001: 94-96). 특히 청소년기는 다른 때와 달리 정체감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청소년에게 함부로 무시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되며,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브렌다(M. Brenda, 1998: 735-52)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더 나은 적응과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한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기 노력의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하거나 자신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심리적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은 위기에 취약하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되면 부적응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자기 거부적인 행동을 보이고 심지어 자살행동에까지 이르게 된다(정철순 외, 2001: 521-532). 프레퍼(C. R. Pfeffer, 1981: 330-41)는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자아정체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할 경우 부모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갖게 되고 이것이 자녀에게 죄책감을 유발시켜 부정적으로 자기자신을 지각하고 무력감을 발생시켜 자살행동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그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살시도의 강한 예측인자가 되며, 자살행동과 상호관련이 있음이 입증되어 왔다.

한편 기독교에서 자아존중감은 기독교 복음 안에서 인간의 의미와 목적,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 곧 기독교적 자아존중감은 자신이나 타인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을 통한 자신과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 형성된다(McMinn and Phillips, 2001: 196-198;

McGrath and McGrath, 2003: 118-28). 칼슨(D. E. Carlson, 2002: 22)은 기독교적 자아존중감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피조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한다. 기독교에서 자아존중감은 인간이 단지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복음을 통해 자신을 비취보고 복음 안에서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린도 전서 6:20, 7:23; 베드로전서 2:9).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만 온전한 자아존중감의 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다(Crabb, 2003: 81-82).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 부모들이 대화시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게 만드는 일은 자녀의 내면의 삶을 비롯하여 개인의 가치와 삶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킴으로 따뜻하고 친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3. 청소년의 자살

2008년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1,2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만성두통,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 중 13%가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에서 일 년 동안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학생이 전체의 23.7%이었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학생은 4.7%였다(배주미 외, 2010: 5-7). 특히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살시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이 소수의 학생들에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자살생각이 매우 낮은 연령층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동반자살이라는 새로운 자살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살사이트까지 등장하여 청소년의 자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살시도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지만, 자살시도율은 청소년기가 가장 높다(Kleck, 1988: 219-236; 김인규·조남정, 2006: 1189-1202). 인지적 미성숙, 정서적 혼란과 강력한 정서경험, 취약한 스트레스 대처 능력 등의 특성과 청소년들이 자기에 관한 통합적 상을 미처 형성하기 못하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

들이 자살충동에 매우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 자살의 위험요인은 사회·문화적 요인, 개인·심리적 요인, 스트레스 요인, 그리고 우울증, 절망감, 소외감, 충동성과 같은 특징적인 단일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Dixon et al. 1991: 51-56; Beck et al. 1993: 139-145; 이윤주 외, 2008: 69-85). 임상적 연구들은 청소년의 자살생각 및 행동과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 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김인규·조남정, 2006: 1189-1202). 이를 정리해 보면 부모 및 가족 애착이나 역기능과 같은 가족환경 요인과 학교스트레스나 학업성적과 같은 학교 관련 요인, 그리고 자아존중감, 자기통제, 충동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청소년 자살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학입시 스트레스나 학교 성적 비판이 자살동기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은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경숙, 2006: 43-157). 이는 성적이 학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교육현실에서 학업성적이 저조한 청소년들은 현재의 학업성취와 미래의 직업 활동 간의 단절을 인식하게 되어 좌절감을 느끼며, 무력감이나 무의미와 같은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시기 한국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며, 학교생활로 인한 과도한 긴장과 갈등, 스트레스가 학교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살충동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청소년의 경우 성인들과는 다른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다. 청소년들의 자살 특징을 알아보는 것은 청소년 자살 행동의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청소년 자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과 달리 정신질환의 표현으로만은 볼 수 없다(Shneidman, 1987: 56-63). 성인의 경우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평소에 잘 생활하던 청소년들도 예상하지 못한 스트레스나 갈등을 회피하려는 욕구, 남을 조종하려는 의도,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했다고 생각하는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분노, 보복 등이 자살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Parrott, 2000: 432-434; 이경진·조성호, 2004: 667-685).

청소년 자살의 또 다른 특징은 자살의도의 문제이다. 대부분이 사전 계획 없이 시도된다. 청소년기는 성취해야 할 과업은 많은데 비해 인지적으로 미성숙하면서 충동성이 강렬하기 때문에 사소한 자극이나 갈등, 한 순간의 우울한 기분에 의해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를 할 위험이 높다(Range, 1993: 135-154). 이는 청소년 자살의 특징이 청소년

기의 심리적 특징인 충동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살의 특징은 실제 자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살하기보다는 자신의 괴로움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이지연 외, 2005: 375-394). 청소년은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급박한 정서를 알리는 신호로서 자살을 시도한다. 그러므로 자살 순간 직전이라도 도움의 손길이 제공된다면 자살 예방이 가능하다.

청소년 자살 행동 사례들은 상실경험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자녀에게만 사랑을 준다거나 가족성원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등 가족체계 내의 심각한 결손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느낌은 청소년의 심리 역동적인 대화에 영향을 미쳐 강한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한다. 가족의 지지가 또래의 지지보다 자살을 보다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 간의 유대가 밀접할수록 청소년의 자살률은 감소하였다(이경진·조성호, 2004: 667-685). 이는 가족 간의 유대가 청소년에게 사회적 지지로 작용하여 자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가족 요인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가족요인으로는 부모의 결혼상태, 가정의 화목도, 가족 응집력,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정폭력 등을 들 수 있다(이지연 외, 2005: 375-394). 이 중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전영주(2001: 151-167)는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분석에서 여자청소년의 경우 생활사건 누적, 학교적응,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유의미하게 자살을 예측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김인규와 조남정(2006: 1189-1202)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우울, 소속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제시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우울이나 소외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부부 간의 불화가 잦고, 가정 내 갈등과 충돌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나 자살 행동이 증가하고, 부모와의 오해된 감정이 자살요인으로 드러난 연구결과 등도 청소년 자살에 미치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McDowell and Hostetler, 2001: 182-187).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부모와의 갈등이 줄어들고 심리적 적응을 잘하게 됨으로서 높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우울성향을 보인다(Puig-Antich et al., 1985: 500-507). 반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이

떨어지고 가정문제를 유발시켜 자녀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Galvin et al., 2008: 330-336).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고 역기능적이며 가족과의 갈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매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이 매우 제한적이다(Michael et al., 1995: 557-568). 부모와의 대화부족, 부모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의 경우 자살의 위험성이 높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원만하게 경험하지 못했거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갈등이 더 많이 고조됨으로서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성경에는 자살행위에 관한 기록은 있으나, 자살 자체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비판은 찾을 수 없다(사사기 9:54, 16:28-31; 사무엘상 31:1-6; 사무엘하 17:23; 열왕기상 16:18; 역대상 10:5; 마태복음 27:3-5; Wright, 1998: 151). 그렇다고 해서 자살에 대한 아무런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살을 결코 해서는 안 될 무서운 죄악이란 사실은 성경의 생명 중시 원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근거를 둔다(창세기 1:27).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신명기 30:19; 요한복음 6:33, 6:53; 로마서 8:2).

성경은 이미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율법을 통해 인간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파괴할 수도 없고 생명이 있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일 권리도 없다. 자살은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앙의 죄라고 할 수 있다. 자살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죄된 사건이다.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상실된 청소년은 실존적 좌절에 직면하게 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저하되며 그 결과로 자살충동이 더 강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내세적 소망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기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만드는 지지기반이 된다. 청소년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소망의 대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내세와 심판 등 미래의 일을 현실에서 인식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절망적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을 소망으로 이끄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가능하므로 필연적으로 신앙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는 청소년이 긍정적 미래인식 및 소망을 확립함으로써 직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전요섭, 2007a: 56-57). 기독교상담가와 교회는 소망을 잃고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개념으로써 회복시켜야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4개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420명(남학생 217명, 여학생 2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2011년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20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해당 학교 교사의 협조를 얻어 연구자들이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검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주었으며 검사시간은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총 420부의 설문지 가운데 결측 반응이 많거나 답을 알 수 없는 설문지 65부를 제외한 35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기독교 청소년은 161명(45.4%), 비기독교 청소년은 194명(54.6%)이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맥코빈(McCubbin), 맥코빈(McCubbin)과 톰슨(Thompson, 1996) 등이 제작한 가족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Family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FPSC) 검사지를 역번역 절차에 따라 전 요점이 번안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FPSC는 가족 간 의사소통에 관한 청소년 자녀의 지각을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스트레스나 갈등으로 인한 긴장을 다루는 방법과 가족기능 수준에 따라 부정적 의사소통(incendiary communication, 문항1, 문항3, 문항5, 문항7, 문항9)과 긍정적 의사소통(affirming communication, 문항2, 문항4, 문항6, 문항8, 문항10)의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는 5 문항씩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맥코빈(McCubbin), 맥코빈(McCubbin)과 톰슨

(Thompson)의 연구에 의하면, FPSC의 하위요인 별 내적 일치도는 $\alpha=.78, .86$ 이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0, .86$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만을 측정하였으므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전요섭이 빈안한 FPSC를 국내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2명의 교수의 검증을 받아 원문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한국어 표현이 자연스럽도록 교정하였다. 번역된 검사지는 영어와 한국어가 능숙한 이중언어 사용자 2명이 검사지들을 영문으로 역번역한 것을 비교하여 원문과 의미상 차이가 발생한 것은 재차 수정하여 최종 동일성을 검증한 후에 사용하였다.

FPSC가 국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2011년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빈안한 FPSC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고유치(eigenvalue) 1 이상의 요인이 2개로 추출되었고, 스크리 검사(scree plot)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요인수를 2개로 결정하여 주성분 분석, 직교회전(varimax)을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얻어진 각 하위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고, 내적 구조를 확인하게 위하여 하위 척도 간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직교회전 후 부모 의사소통 검사지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표1>, <표2>와 같다.

부정적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문항은 “우리는 서로에게 고통치고 소리를 지른다.” “우리는 지난 일들을 끄집어내고 싸움으로써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등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문제성이 많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긍정적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문항은 “우리는 시간을 내서 각자가 말하고 느끼는 것을 들으려고 한다.” “우리는 침착하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등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개방적이고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Likert 타입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의사소통 검사지의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3>과 같다.

〈표1〉 부 의사소통 검사지의 요인구조

요인명	문항	요인1	요인2
부정적 의사소통	1	-.805	.015
	7	-.791	-.143
	4	.694	.375
	10	.657	.453
	2	.651	.495
긍정적 의사소통	9	.307	.776
	3	-.034	.770
	8	.237	.754
	6	.460	.580
	5	-.196	-.545
고유치		4.757	1.265
설명변량(%)		30.134	30.090
누적변량(%)		30.134	60.224

〈표2〉 모 의사소통 검사지의 요인구조

요인명	문항	요인1	요인2
부정적 의사소통	1	-.825	-.116
	7	-.798	-.111
	4	.666	.386
	10	.643	.440
	2	.619	.532
긍정적 의사소통	8	.209	.789
	3	.000	.766
	9	.455	.683
	6	.376	.649
	5	-.304	-.503
고유치		4.945	1.095
설명변량(%)		30.403	30.000
누적변량(%)		30.403	60.403

〈표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검사지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부모	요인	문항수	문항	역문항	Cronbach α
부	부정적 의사소통	5	1, 7	2, 4, 10	.841
	긍정적 의사소통	5	3, 6, 8, 9	5	.786
모	부정적 의사소통	5	1, 7	2, 4, 10	.840
	긍정적 의사소통	5	3, 6, 8, 9	5	.797

(2)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레(Bruce R. Hare, 1985)가 제작하고, 전요섭(2004)이 번안하여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거쳐 수정한 자아존중감 척도(Hare Self-Esteem Scale: HSS)를 사용하였다. HSS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또래집단, 학교, 가정 등 각각의 영역에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또래 자아존중감(peer self-esteem), 가정 자아존중감(home self-esteem), 학교 자아존중감(school self-esteem)의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척도는 각각 10문항 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타입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레(Hare)의 연구에 의하면, 세 하위척도와 전체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alpha=.74$ 이상이였다. 전요섭, 이진영(2004: 152-177)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전체 Cronbach $\alpha=.879$, 또래 $\alpha=.768$, 가정 $\alpha=.801$, 학교 $\alpha=.726$ 이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alpha=.876$, 또래 $\alpha=.745$, 가정 $\alpha=.815$, 학교 $\alpha=.741$ 로 나타났다.

(3) 자살위험성 예측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을 위해서 사용된 검사지는 쿨(J. G. Cull)과 길(W. S. Gill, 1988)이 제작한 Suicide Probability Scale(SPS)를 고태진, 김대진, 이홍표(2000)가 한국 청소년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타당화 연구 과정을 거쳐 개발한 청소년 자살위험성 예측 검사지(Suicide Probability Scale for Adolescents: SPS-A)이다. SPS-A는 자기보고식 검사지로 부정적 자기평가(negative self-evaluation), 절망감(hopelessness),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적대감(hostility)의 네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1문항이다. 하위 요인 중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은 자살시도의 위험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자살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

으나 실행으로 옮기지 않은 경우로 타인에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SPS-A는 Likert 타입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고희진, 김대진, 이흥표(2000: 680-688)의 연구에서 자살위험성 예측 검사지 전체의 Cronbach α 는 .702이며, 하위척도인 부정적 자기평가, 적대감, 절망감, 자살생각의 Cronbach α 는 .748, .646, .793, .80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α =.930, 부정적 자기평가 α =.841, 적대감 α =.744, 절망감 α =.850, 자살생각 α =.856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하였으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위험성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4>와 같다.

<표4>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구분	또래자존감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	자존감
부 부정형	-.228**	-.543**	-.373**	-.479**
부 긍정형	.195**	.430**	.329**	.398**
모 부정형	-.190*	-.592**	-.297**	-.455**
모 긍정형	.254**	.579**	.340**	.490**

* $p < .05$, ** $p < .01$, *** $p < .001$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긍정형 의사소통은 또래자존감,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 전체 자존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부·모의 부정형 의사소통은 또래자존감,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 전체 자존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부·모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또래자존감,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이 높고, 부·모와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또래자존감,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이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의사소통 과 자존감 하위척도와의 관계에서 모 부정형 의사소통은 가정자존감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r=-.592, p<.01$), 모 긍정형 의사소통이 가정자존감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이 있었다. 전체 자존감과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 긍정형 의사소통은 부 긍정형 의사소통보다 전체 자존감과 더 큰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모 부정형 의사소통은 부 부정형 의사소통보다 전체 자존감과 더 낮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와 긍정형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부정형 의사소통이 줄어들 때 높게 나타나며, 특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부·모 모두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려면 부모들이 자녀와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2.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위험성 예측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기독교 청소년과 비기독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자살 위험성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표본집단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5>, <표6>과 같다.

<표5> 기독교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에 대한 의사소통, 자아존중감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B	Beta	F	t
부정적자기평가	가정자존감	.491	-.282	-.262		-3.396**
	또래자존감	.609	-.379	-.308		-5.150***
	학교자존감	.661	-.365	-.308	64.687***	-4.339***
	모 긍정형	.678	-.306	-.160		-2.535*
적대감	학교자존감	.276	-.183	-.277		-3.389**
	또래자존감	.369	-.231	-.337	29.846***	-4.320***
	모 부정형	.419	.222	.240		3.271**
절망감	학교자존감	.418	-.664	-.488		-5.507***
	가정자존감	.449	-.294	-.238	51.018***	-2.691**
자살생각	가정자존감	.276	-.258	-.383		-3.836***
	학교자존감	.302	-.160	-.215	27.023***	-2.154*
자살위험성예측	학교자존감	.507	-1.339	-.397		-5.276***
	또래자존감	.579	-.903	-.259		-4.063***
	가정자존감	.624	-.664	-.217	53.780***	-2.623*
	모 부정형	.636	.621	.132		2.032*

*p<.05, **p<.01, ***p<.001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자존감, 또래자존감, 학교자존감, 모 긍정형이 부정적 자기평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67.8%를 설명하였다. 이는 기독교 청소년들이 가정, 또래, 학교자존감이 높을수록, 어머니와 개방적이고 친밀한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기 자신을 가치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적대감에서는 학교자존감, 또래자존감, 모 부정형이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1.9%였다. 즉 기독교 청소년들이 학교, 또래자존감이 높을수록 적대감이 낮았고, 어머니와 억압적이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적대감이 높았다.

절망감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학교자존감, 가정자존감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4.9%였다. 이는 기독교 청소년들이 학교, 가정에서 자존감이 높을수록 절망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반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절망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이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0.2%였다. 이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살을 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가 높음을 의미한다.

기독교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학교자존감, 또래자존감, 가정자존감, 모 부정형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63.6%였다. 즉 기독교 청소년들은 학교, 또래, 가정자존감이 낮을수록, 어머니와 부정형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살위험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교자존감은 총 설명변량 중에서 50.7%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데, 이것은 어느 요인보다 학교 영역에서의 자존감이 기독교 청소년들의 자살위험성을 예측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6> 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에 대한 의사소통, 자아존중감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B	Beta	F	t
부정적자기평가	가정자존감	.486	-.342	-.317	78.192***	-5.236***
	학교자존감	.578	-.325	-.284		-5.539***
	또래자존감	.611	-.303	-.223		-4.749***
	부 부정형	.631	.211	.141		2.840**
	모 긍정형	.639	-.185	-.111		-2.152*
적대감	가정자존감	.205	-.138	-.224	24.854***	-2.609*
	학교자존감	.229	-.134	-.206		-2.962**
	모 부정형	.251	.152	.188		2.512*
절망감	학교자존감	.336	-.458	-.338	44.595***	-5.345***
	가정자존감	.411	-.278	-.218		-3.179**
	또래자존감	.432	-.284	-.176		-3.039**
자살생각	부 부정형	.446	.249	.140	37.032***	2.365*
	가정자존감	.234	-.295	-.407		-5.902***
	학교자존감	.248	-.110	-.143		-2.073*
자살위험성예측	가정자존감	.440	-1.093	-.349	73.680***	-5.784***
	학교자존감	.531	-.972	-.293		-5.254***
	또래자존감	.552	-.706	-.179		-3.507**
	부 부정형	.570	.705	.162		3.105**

*p<.05, **p<.01, ***p<.001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 학교, 또래자존감, 부 부정형, 모 긍정형이 부정적 자기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63.9%를 설명하였다. 이는 비기독교 청소년이 가정, 학교, 또래자존감이 낮을수록, 아버지와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어머니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적게 할

수록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적대감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 모 부정형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5.1%였다. 비기독교 청소년이 가정, 학교자존감이 높을수록 적대감이 낮았고, 어머니와 부정형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적대감이 높았다. 반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유형은 적대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절망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학교자존감, 가정자존감, 또래자존감, 부 부정형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4.6%였다. 즉 학교, 가정,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존감이 낮을수록, 아버지와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절망감이 높았다. 또한 청소년의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이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4.8%였다. 이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살을 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가 높음을 의미한다.

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해 주는 요인은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 또래자존감, 부 부정형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7.0%였다. 비기독교 청소년은 기독교 청소년과는 달리 가정자존감이 자살위험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부정적 의사소통이 자살위험성 예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학교, 또래자존감이 낮고, 아버지와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살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자살위험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기독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자살위험성을 설명하는 변량은 62.4%였고, 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자살위험성의 55.2%를 설명하였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서는 특히 부모의 부정형 의사소통이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독교 청소년의 경우 모 부정형 의사소통이 1.2%, 비기독교 청소년의 경우 부 부정형 의사소통이 1.8%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긍정형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 하위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부정형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 하위척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이 자살위험성 예측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 영향을 주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자살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이라는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Rudd, 1990: 16-30). 이는 부·모가 자녀에 관심을 갖고 자녀와 감정교류가 있는 대화나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줄때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은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기독교 청소년 및 비기독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위험성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긍정형, 부정형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 하위요인과 정적·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 결과는 청소년과 부·모와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친밀할수록 가정, 학교, 또래자존감은 높게 나타나고, 부·모와 폐쇄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가정, 학교, 또래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폐쇄형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김태현, 이영자(2005: 173-193), 한주리, 허경호(2005: 202-2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들도 자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녀와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긍정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부모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기독교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에 대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기독교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학교자존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또래자존감, 가정자존감, 모 부정형 의사소통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정자존감, 또래자존감, 학교자존감, 모 긍정형 의사소통이 부정적 자기평가를, 학교자존감, 또래자존감, 모 부정형이 적대감을, 학교자존감, 가정자존감이 절망감을,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이 자살생각을 의미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

고 원활할수록 자살생각이 감소하는 반면 의사소통이 비개방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자살 생각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지연 외 2005: 375-94; Grob et al., 1983: 163-173), 청소년 자살 시도자들은 가족 의사소통의 질이 매우 부족하다는 연구(Michael et al., 1995: 557-568)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이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이경진·조성호, 2004: 667-85). 특히 학교자존감이 기독교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만성적인 과열입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한국 청소년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기독교 청소년의 자존감과 어머니와의 긍정형 또는 부정형 의사소통이 자살위험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자존감이 자살위험성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볼 때, 청소년의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교육,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부모의 책임감 있고 명확한 표현력, 솔직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야말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어머니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살위험성 예측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 또래자존감, 부 부정형 의사소통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 또래자존감, 부 부정형, 모 긍정형 의사소통이 부정적 자기평가에,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 모 부정형 의사소통이 적대감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자존감, 가정자존감, 또래자존감, 부 부정형 의사소통이 절망감에, 가정자존감, 학교자존감이 자살생각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기독교 청소년은 기독교 청소년과는 달리 가정자존감이 자살위험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자아존중감의 하위 척도라고 하더라도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비기독교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문제로 인해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자살 생각은 대부분 가정에서의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는 이전의 선행연구(Spirito et al., 1989: 333-363; Wagner, 1997: 246-298)와 유사한 결과로 청소년에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나타낸다. 또한 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존감과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중 특히 아

버지 부정형 의사소통이 자살위험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주로 어머니에 국한되어 온 부모교육에 적극적으로 아버지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적 지원이 마련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자살위험성 예측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변인에 대해 미리 청소년, 학교,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상담을 받거나 예방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이 검토된다면 청소년 자살예방과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과 아울러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살위험성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개인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에 국한시켰다. 청소년 자살위험성이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살위험성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 및 가정, 사회환경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기독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외에 기독교 신앙 성숙도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제한된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역과 연구대상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남식 (1999). 『기독교커뮤니케이션학』. 서울: 배다니.
- 고효진·김대진·이홍표 (2000). “청소년 자살위험성 예측척도의 타당화 연구(I)”. 『신경정신의학』 39(4). 680-688.
- 국길숙·이미숙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 『생활과학연구논집』 23(1). 89-107.
- 김보화·이정운 (2010).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청소년의 성충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적응력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1(3). 1221-1236.
- 김인규·조남정 (2006).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7(4). 1189-1202.
- 김태현·이영자 (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기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173-193.
- 문경숙 (2006).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5). 43-157.
- 배주미·이승연·김은영 (2010).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 개발-학교 장면에서의 개입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56. 1-360.
- 안현정·이소희 (200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0(1). 65-81.
- 이경진·조성호 (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67-685.
- 이윤주·김경화·민하영 (2008). “인문계 고등학교의 자살생각 및 시도와 신뢰감 및 진로장벽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6(1). 69-85.
- 이지연·김효창·현명호 (2005). “스트레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청소년 자살생각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4). 375-394.
- 전요섭 (2007a). 『기독교상담과 신앙』. 서울: 좋은나무.
- 전요섭 (2007b). “청소년의 아버지 권위유형과 기독교신앙에 따른 가족 강인성”. 『청소년학연구』 14(1). 189-212.
- 전요섭·황미선 (2004). 『행복한 우리집』. 서울: 한국가정사역연구소.
- 전요섭·이진영 (2004). “부모의 기독교신앙과 권위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차이”. 『복음과 상담』 3(가을). 152-177.
- 정철순·임숙반·고효진 (2001). “청소년의 자살 위험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0(4). 521-532.
- 조하나·백용매 (2009).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2). 1035-1048.
- 채유경 (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2(2). 136-144.
- 한주리·허경호 (2005). “가족 의사소통 패턴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노출, 내적 통제성 및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49(5). 202-227.

- 현명선·남경아 (2009).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5(2). 293-301.
- Barnes, H. L.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Beck, A. T., Steer, R. A., Beck, J. S. & Newman, C. F. (1993). “Hopelessne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Clinical Diagnosis of Depress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3. 139-145.
- Brenda, M. (1998). “Personal Resilience, Cognitive Appraisals, and Coping: An Integrative Model of Adjustment to Abor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735-752.
- Capps, D. E. (1983). *Life Cycle Theory and Pastoral Care*. 문희경 역 (2001). 『인간발달과 목회적 돌봄』. 서울: 이레서원.
- Carlson, D. E. (1988). *Counseling and Self-Esteem*. 이관직 역 (2002). 『자아존중감』. 서울: 두란노.
- Collins, G. R. (2003). *Christian Counseling: A Comprehensive Guide*. Dallas: Word.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Corcoran, K. and Fischer, J. (2000).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 New York: Free.
- Crabb, L. (1975). *Basic 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 전요섭 역 (2003). 『성경적 상담학 개론』. 서울: 아가페문화사.
- Cull, J. G. and Gill, W. S. (1988). *Suicide Probability Scale(SPS)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Dixon, W. A., Heppener, P. P. and Anderson, W. P. (1991). “Problem-Solving Appraisal, Stress,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in a College Pop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51-56.
- Friedrich, W. R., Reams, R. and Jacobs, J. (1982).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 402-407.
- Galvin, K. M. Bylund, C. L. and Brommel, B. J. (2008).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2nd ed.). Boston: Pearson/Allyn and Bacon.
- Grob, M., Klein, A. and Eisen, S. (1983). “The Role of the High School Professional in Identifying and Managing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163-173.
- Hamner, T. J. and Turner, P. H. (2001).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 Needham, MA: Allyn & Bacon.
- Kleck, G. (1988). “Suicide and Threatening Behavior.” *Miscounting Suicide* 18. 219-236.
- McCubbin, M. A., McCubbin, H. I. and Thompson, A. I. (1996). “Family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FPSC).” in Kevin Corcoran & Joel Fischer (eds.) (2000).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vol 1. New York: Free.

- McDowell, J. and Hostetler, B. (1996). *Handbook on Counseling Youth*. 오성춘 역 (2002). 『청소년상담 핸드북 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McGrath, J. and McGrath, A. (2001). *Self-Esteem: The Cross and Christian Confidence*. 윤종석 역 (2003). 『자아존중감: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의 자신감』.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 McMinn, M. R. and Phillips, T. R. (2001). *Care for the Soul: Exploring the Intersection of Psychology and Theology*. 전요섭 외 역 (2006). 『영혼돌봄의 상담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Meier, P. D., Minirth, F. B., Wichern, F. B. and Ratcliff, D. E.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Grand Rapids: Baker.
- Michael, K., Richard, H. and Elizabeth, D. (1995). "Brief Home-Based Intervention with Young Suicide Attempters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Adolescence* 18. 557-568.
- Newman, B. M. & Newman, P. R. (1984). *Development through Life: A Psychological Approach*. 박아청 역 (1991). 『현대발달심리학: 평생발달의 심리』. 서울: 형설.
- Olson, D. H. and DeFrain, J. (2006). *Marriage & Families: Intimacy, Diversity, and Strengths*. Boston: McGraw-Hill.
- Parrott III, L. (2000). *Helping the Struggling Adolescent*. Grand Rapids: Zondervan.
- Puig-Antich, J., Lukens, E., Davies, M., Goetz, D., Brennan-Quattroch, J. and Todak, G. (1985). "Psychosocial Functioning in Prepubertal Major Depressive Disorde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uring the Depressive Episode." *Archives General Psychiatry* 42. 500-507.
- Range, L. M. (1993). "Suicide Prevention: Guidelines for School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5(2). 135-154.
- Rice, F. P. (1999).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 and Culture*. 정영숙, 신민섭, 설인자 역 (2004). 『청소년 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Rudd, M. D. (1990). "An Integrative Model of Suicidal Ide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0. 16-30.
- Satir, V., Banman, J., Gerber, J. and Gomori, M. (1991). *Satir Model: Family Therapy and Beyond*. 한국버지니아 사티어 연구회 역 (2000). 『사티어 모델: 가족 치료의 지평을 넘어서』. 서울: 김영애 가족치료연구소.
- Shneidman, T. (1987). "Adolescents Suicid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48. 56-63.
- Sillars, A. L. and Fitzpatrick, M. A. (2005).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in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1. 102-128.
- Spirito, A., Brown, L., Overholser, J. and Fritz, G. (1989). "Attempted Suicide in Adolescence: A Review and Critique of the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9. 333-363.

- Wagner, B. M. (1997). "Family Risk Factors for Child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21. 246-298.
- Wodarski, J. S. & Harris, P. (1987). "Adolescents Suicide: A Review Of Influences and the Means for Prevention." *Social Work in Health Care* 32. 477-484.
- Wright, H. N. (1986). *Crisis Counseling: Helping People in Crisis and Stress*. 전요섭, 황동현 역 (1998). 『위기상담학』. 서울: 콤파스.
- 여성가족부(2010). "청소년 가족관계 실태".
- 통계청 (2010) "2009 사망원인 통계 결과".
- 한국일보 2010. 8. 15일자 2면.

ABSTRACT

The Effects of Family Problem Solvi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esteem on Suicide Probability in Adolescent : Comparison between Christian Adolescent and non-Christian Adolescent

Joseph Jeon(Sungkyul University)

Jinyoung Lee(Sungkyul University)

This research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esteem and family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self-esteem affects Christian adolescent's suicide probability and non-Christian adolescent's suicide probability. The object of research is selected random of 355 students from 4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Kyongkido. The tools of investigation were (1) Family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scale by Marilyn McCubbin, Hamilton McCubbin, and Anne Thompson. (2) Hare Self-Esteem Scale by Bruce R. Hare. (3) Suicide Probability Scale for Adolescents by Go Hyojin, Kim Daijin, Lee Heungpyo. The statistical methods were frequency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12.0 in statistic center of Sungkyul Univers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parent-adolescent affirming communic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Parent-adolescent incendiary communica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Secondly, in influence of suicide probability by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esteem that Christian adolescent and non-Christian adolescent who cognize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In order of school self-esteem, peer self-esteem, home self-esteem, mother incendiary communication had much effect on the suicide probability of Christian adolescent. Also, lastly, In order of home self-esteem, school self-esteem, peer self-esteem, father incendiary communication had much effect on the suicide probability of non-Christian adolescent.

Key Words: family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self-esteem, suicide probability, adolescent, Christian counseling